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사회적이고 비사회적인 가족을 묻다

- ◀ 일시 2017년 9월 19일(화) 13:30 - 17:00
- ◀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 (의원회관 2층)
- ◀ 주최 서울특별시
- ◀ 주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협력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사회적이고 비사회적인 가족을 묻다

- ◀ 일시 2017년 9월 19일(화) 13:30 - 17:00
- ◀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 (의원회관 2층)
- ◀ 주최 서울특별시
- ◀ 주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협력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프로그램

순서	진행시간	진행내용
사전등록	13:30-13:40	• 등록
	13:40-13:42	• 개회 및 국민의례
	13:42-13:45	• 개회사 : 김명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13:45-13:48	• 인사말 : 임정희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이사장)
	13:48-13:53	• 10주년 기념 영상
[1부] 10주년 기념식	13:53-14:00	• 환영사 :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14:00-15:00	• 발표 1 :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가족의 역사와 가족이데올로기 고정갑희 (한신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발표 2 : '가족'에 자리 잡은 성차 - '가족'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인가? 박이은실 (여성학자,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2부] 심포지엄	15:00-16:00	• 발표 3 : '건강'과 '가정'을 다시 생각하기 - 가족 차별은 어떤 고통을 만드는가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발표 4 : '가족'의 이미지와 현실 류미래 (영화감독)
종합토론	16:00-17:00	• 사 회 : 임정희 (연세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이사장) • 발표자와 참여자들의 열린 토론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명신입니다. 서울시센터는 2007년 10월 개소하여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 2월 제정된 이래, 서울시는 용산구시범센터를 시작으로 광역시 중 가장 먼저 25개 모든 자치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 25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컨트롤 타워로서 여성가족부의 비전과 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가족정책 추진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가족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울시 차원의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에 앞장섰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자 가족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가 위탁운영하며 시민자치문화 활동의 진흥을 위해 서울시 가족정책에 기반을 두고 서울시 모든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가족지원 나눔 서비스를 통한 돌봄문화 확산과 가족친화문화조성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협치를 통해 “전환기 부모교육”과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육”의 경우 올바른 부모관에 대하여 정립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많은 성과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서울가족의 가족환경은 급격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 정책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사회문제의 출발점은 가족의 문제이고 가정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새로운 혁신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족공공성과 지역공동체, 사회혁신' 이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가족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가족위기를 예방하고자 가정의 건강성과 가족친화 사회를 실현하는 가족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가족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가족 여러분들에게 기대어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0주년의 발걸음을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서울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 명 신

발표 1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가족의 역사와 가족이데올로기

·
·
·

고정갑희

한신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가족의 역사, 가족 이데올로기

발표자: 고정갑희
일시: 2017.9.19

오늘의 가족 이야기

- ▶ 가족은 자연이 아니다.
- ▶ 가족은 변화해 왔다.
- ▶ 가족은 앞으로도 변화 가능하다.
- ▶ 가족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목을 매는지? 경제단위, 생존단위이고, 정서적 연대 단위.
- ▶ 가족은 계급: 혈연주의, 지역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 종족주의 본산.
- ▶ 친족간의 여성거래, 공동체 경계짓기, 근친상간금지, 최초의 재산으로서 여성, 가족과 여성, 인간생산+양육의 책임 공간,
- ▶ 국가가 가족단위를 통해 남성과 여성자체를 통제, 개인들을 직접 통제하지 않고, 국민동원 조직.
- ▶ 국가는 임신출산을 인구재생산의 단위로 가족을 둔다.
- ▶ 자본축적의 수단으로서 가족: 여성의 가사노동

가족, 무엇을 말할 것인가

- ▶ 가족의 역사, 가족이데올로기
- ▶ 근대 서구의 핵가족화
- ▶ 비서구의 대가족 혹은 마을, 부족, 종족 공동체로서 확대된 가족 혹은 축소된 국가
- ▶ 가족이란 성장치: 만들어진 것으로서 가족
- ▶ 가족은 국가, 시장, 신체, 미디어, 종교, 교육, 서사 장치와 연동된다.

낭만적 사랑, 결혼, 가족: '정상성' 이데올로기

- ▶ 성인 남녀가 사랑에 빠지다. (성인이 아니면 안되고, 이성애적 남녀가 아니면 안된다)
- ▶ 사랑의 결실은 결혼이다. (가족 밖의 사랑-섹스는 안된다: 혼외정사, 불륜, 간통과 매춘)
- 가족구성은 매춘/결혼 밖의 섹스를 금한다.
- ▶ 결혼으로 부부관계가 형성된다.
- ▶ 부부간의 사랑(섹스)의 결실이 자녀다.
- ▶ 사랑과 출산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다.
- ▶ 가족은 세대간 섹스/사랑은 금한다.(근친상간과 미성년과의 섹스/사랑)
- ▶ 건강가족과 우생학적 가족에 기반한 가족의 정상성 문제
- ▶ 사랑은 출산보다 더한 억압. 낭만적 사랑과 가족만들기.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 ▶ **엥겔스의 혼인, 일부일처제, 사유재산, 국가의 토대**
- ▶ **사유재산과 가족**
- ▶ **국민생산기관으로서 가족**
- ▶ **핏줄가족, 핵가족,**
- ▶ **자궁가족, 초국적가족,**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 ▶ 인간 사회와 가족의 발달을 다룬다. 가족 경제학에 대한 최초의 저술 중 하나.
- ▶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은 《고대 사회》에 대한 집중적 논의에서 시작한다. 인간 사회에서 최초의 가정(domestic) 집단은 가족이 아니라 모계 집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엥겔스는 루이스의 《고대 사회》를 요약하며 모건의 견해를 따른다. 모건은 미국의 변호사였으며, 미국 원주민의 토지 권리를 옹호하여, Seneca Iroquois 족의 명예 부족원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Iroquois 족은 모계에 기반한 긴 공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처가살이를 하였다. 엥겔스는 모건의 모계 집단의 발굴의 이론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 “모건과 엥겔스에 따르면 원시 공산제는 여성이 자신의 자매와 살며 “나의 자매의 아이는 나의 아이”라는 원리를 적용하는 모계 집단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함께 살면서 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 가구에서 사는 여성은 다른 여성에 대하여 강한 연대감을 느끼며 필요할 때는 비협조적인 남성에게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모건에 따르면 양도 가능한 재산의 등장은 시집살이와 부계로의 이행을 촉발하여 여성의 힘을 약화시켰다.”

프로이트, 정신분석이 만든 가족 로맨스

- ▶ 근대 서구 핵가족의 가족 로맨스 가부장적 신화의 분석이자 유지재생산이다.
- ▶ 가족과 섹슈얼리티
- ▶ 근친상간금기와 핵가족

출산과 가족

- ▶ 가족의 핵심 기능으로서 출산
- ▶ 출산을 통한 국민 생산과 국가 생산력 유지
- ▶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와 출산
- ▶ 마녀사냥과 여성의 순결이데올로기를 통한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 ▶ 동성혼, 동성애 금지와 낙태금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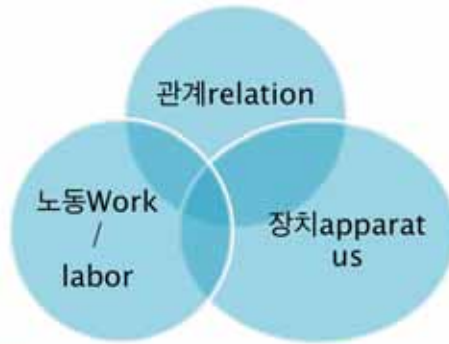
자본과 가족

- ▶ 가족은 상품의 소비 단위
- ▶ 가족은 노동력의 생산 단위
 - 임신 출산을 통한 2세 생산 (무상)
 - 양육과 교육을 통한 노동력 생산 (무상)
- ▶ 노동력 생산을 하는 (재생산) 노동의 장소
- ▶ 가족은 여성에게 무상으로 노동하게 하는 장치이고 자본은 그 혜택을 누린다.
- ▶ 자본은 임노동자를 통해 축적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비가치화된 무상의 가족노동을 통해 축적한다.

성장치로서 가족:
여성노동과 가족의 안과 밖/ 노동, 교환, 가치의 문제



성장치와 가족:
성관계, 성노동, 성장치로 구성되는 성체계



성장치로서 가족: 재현

- ▶ 가족가족장치는 어떻게 유지재생산되는가:
글로벌 인간생산, 대리모산업, 성폭력
- ▶ <구글베이비>
- ▶ <강가의 여자>
- ▶ <얼굴을 살리며>
- ▶ <시녀이야기>

가족과 가부장체제 :성중계급체계



계급/성/중체계와 가족 장치

체계	노동	생산	지불	착취	모순	문제	적/복/보 라 문제 설정	이론들
계급 체계	자본-(남여)임 노동	상품 생산	지불	노동 착취	계급 모순	자본 주의	적의 문제 설정	마르 크스 주의
성체계	여/성노 동	인간-쾌 락-가사 생산	부불	성 착취	성 모순	가부 장제	보라의 문제 설정	페미 니즘
중체계	중노동	중생산/ 상품생 산	부불	중 착취	중 모순	인간 중심 주의	녹의 문제 설정	생태 주의

가족과 성종계급체계

- ▶ 성체계: 젠더체계, 여성이 아래에서 가족을 건사하고, 떠받드는 노동을 하는 체계.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성적 폭력과 가정폭력, 아동기를 만들.
- ▶ 계급체계: 생산자로서 남성노동자/여성이 배제, 혹은 여성이 집단적으로 배제. 캘리번과 마녀에서는 마녀사냥이 자본주의의 시초축적과 연관된다고 본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통해 여성을 산업노동에서 배제하면서 가정에 머물게 하고, 농업노동도 할 수 없게 만든 과정.
- ▶ 종체계: 생산자로서 Female/암컷, 유전자조작의 장.

달라진 가족, 사라진 가족: 포스트휴먼의 포스트가족?

- ▶ <멋진 신세계>: 야만인 구역은 부모가 있다. 인간은 대량 생산되는 사회, 아예 계급화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다. 가족은 사라졌다. 가족이 있다는 것은 끈적끈적한 감정이 있다는 것이고, 성윤리가 있어서 불륜이라는 것이 있고, 근친상간금기가 있다. 다양한 SF 영화와 소설들이 가족이 사라진 자리를 보여준다.
- ▶ <엑스 마키나>

‘여성인공생식기’의 발명과 가족의 변화

- ▶ 인공수정을 넘어 인공생식으로
- ▶ 포스트휴먼과 인공생식
- ▶ 시녀이야기, 멋진신세계, 성의 변증법을 연결할 인공 자궁
- ▶ 생산과 생식의 변화
- ▶ 에바, 에바타, 엑스마키나

‘여성인공생식기’



가부장적 가족, 대안 가족을 넘어 우리는

- ▶ 가부장적 성장치로서 가족과 대안 가족?
 - 이성애적 가족
 - 여성의 노동을 비가치화하는 가족
- ▶ 근대 국가나 자본이 만들어 낸 가족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 가족의 역사, 가족이데올로기를 넘어 우리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2

‘가족’에 자리잡은 성차

가족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인가

·
·
·

박이은실

여성학자,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가족’에 자리잡은 성차

박이은실(지순협 대안대학)

1.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질문

- (1) ‘가족’을 떠올려 볼 때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1.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질문

- (2)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실제 '가족' 구조 통계: 가족 및 가구형태를 중심으로 (2010년 및 2015년 통계청 통계 기반)
- 가족 내 세대 구성비율: 1세대(21%→16.6%), 2세대(58.2%→56.4%), 3세대(4.9%→5.7%), 1인가구(15.8%→21.3%)

1.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질문

- (2)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실제 '가족' 구조 통계: 가족 및 가구형태를 중심으로 (2015년 통계청 통계 기반)
- 가족원 수: 1명(21.3%), 2명(22.9%), 3명(20.8%), 4명(26.4%), 5명 이상(8.6%)

1.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질문

- (3) '동거인'의 구성: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혹은 살고 있지 않은가? 함께 사는 사람이 가족인가?
혈연이 가족인가? 국가등록 여부가 가족인가?

1.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질문

- (4) '동거인'의 성: 동성 관계는 가족이 될 수 있는가?

2. ‘딸’로 시작되는 삶: 일상의 체험

· (1) A(1957년생)의 사례:

· “다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못사는 집도 아닌데 생선이나 이런 거에 내 젓가락이 가면 엄마가 툭 쳐냈던 기억. (중략)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도 (중략) 그때 OO국민학교라고 노란색 교복을 입는 관찰은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오빠를 넣으려고 시험을 보고 그랬어요. 초등학교시험을 봤는데 오빠가 떨어진 거예요. (중략) 나도 그때 막연하게 OO국민학교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왜 나한테는 시험을 보라는 소리를 안 하는지, 나는 붙었을 텐데, 나는 오빠보다 잘하니까, 오빠한테는 보라 그러고 나한테는 그런 말을 전혀 안하는지. (중략) 그때 오빠가 시험을 보는 세 대여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침마다 자기 도시락 싸가는 거를 안 싸가고 항상 올엄마가 나한테 오빠 갖다 줘라 그랬는데, 그 도시락을 갖다 주면 (중략) 오빠네 반 아이들이 (중략) 나와서 놀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라. (중략) 내가 큰말이다 보니까 동생들을 챙기는 일, 밥을 챙겨 주거나 하여튼 집안일과 관련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죠. (중략) 한 번은 내 여동생 친구가 와갖고, 내 바로 밑에 여동생이랑 나하고 다섯 살 차이가 나는데 (중략) 애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다가 애한테 날 보고 니네집 식모나 이런 말을 해.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야.” (<양성애: 열두 개의 퀴어이야기> 중에서)

2. ‘딸’로 시작되는 삶: 일상의 체험

· (2) B(1971년생)의 사례:

· “바로 밑에 동생이 일 년 반 터울인 해에 태어나고 또 바로 밑에 동생이 태어나고 이러면서 외가댁에 보내졌다가 할머니댁에 보내졌다가 이동을 많이 했어요 내가. (중략) 그 시골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막내 삼촌 사는 집에 엄마가 나를 데려가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하고 대문을 나서는 모습인데, 내가 가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 엄마 그러는데 엄마가 뒤 한 번 안 돌아 봤어요. 엄마 표정은 뭐 어떨지 상상할 수 없지만 알뜰 엄마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나한테 되게 중요했던 거 같애. 그리고 너무 할머니가 날 꼭 붙잡고 있었는데 할머니 젓가슴을 잡아 뜯었어, 너무 화가 나서, 농오란 말이야 이러면서. (중략) 할머니 댁에서 맨날 빨래했어요. 삼촌, 할아버지 양말, 속옷 이런 건 항상 내가 빨았어요. 찬물에, 겨울에도. (중략) 그런 게 내가 되게 싫어했던 거 같애. 그래도 그걸 티내거나 하진 않았던 거 같애요. (중략)근데 나한테만 그래. 바로 밑에 동생한테는 칼을 안 들이대는데, 네 애미나 너나 똑같다. 동일시를 하는 거지. 그래갖고 같이 여기에 막 들어왔어요 목에. 그래갖고 인제 나는 그때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 같애. 근데 어떻게 해서 (중략) 세놓은 집에 숨어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왔다고 울고 떨고 있으니까 그 집에서 밥을, 잠을 재웠는지 뭐 했겠지. (중략) 근데 남의 집이잖아. 가긴 가야했는데 미친놈이 있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지. 분노감이 장난이 아니었어.” (<양성애: 열두 개의 퀴어이야기> 중에서)

2. ‘딸’로 시작되는 삶: 일상의 체험

· (2) C(1981년생)의 사례: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옆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관다에서 보면 학교 운동장이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이면 딸내미가 요렇게 찡뚱 못하는 게 다 보여. 그러면 밤에 운동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자전거도 뒤에서 아버지가 운동장에서 잡아주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도 하는 말이 남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나는 그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롤러스케이트를 사주면서 엄마는 롤러스케이트 위험한데 왜 사주나 그러면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남자와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 (중략) 저뿐만 아니라 언니랑 저한테 놀 둘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놀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남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지면 안 된다. 스무 살 전엔 연애하면 안 된다. 배울 수 있는 건 뭐든 배우라, 그리고 우리는 너희한테 똑같이 해준다. 아버지 생각엔 모든 걸 똑같이 해주고 모토는 그거였는데 사실은 저한테 더 많이 해주셨죠. 제가 들쭉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를 더 많이 달기도 했고 더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중략)

(아버지는) 뭐 듣기로는 이제는 남녀평등사회가 온다니까 너희도 남자랑 대적해야 된다. 여자라고 해서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장 가부장적인 모습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친가에 가잖아요. 그럼 외가에 가면 30분도 안 되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당신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아빠 왜 외가엔 안 가기도 하고 30분만 있다 오기도 하고 이게 뭐냐. 우리 나중에 다 시집 가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그런 소리가 싫으셨던 거예요. 계속 매사 그런 식이었던 거죠.” (<양성애: 열두 개의 퀴어이야기> 중에서)

2. ‘딸’로 시작되는 삶: 일상의 체험

· (2) D(1987년생)의 사례: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드신 다음부터는 엄마를 10년 동안 거르지 않고 매일 이렇게 때리고, 저도 그렇게 맞았었고. 몸에 어렸을 때 흉터가 가실 날이 없었어요. (중략)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다기보다는 무서웠죠. 공포의 대상이었죠. 이제 공포의 대상을 넘어서서 이제 증오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커가면서. (중략) 열여덟 살 때 서울에 온지 얼마 안 돼갖고 제 아버지한테 스킨로션병으로 맞았다고 아파 얘기했을 거예요. 화장품 병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로 뒤통수를 맞은 뒤부터 이상하게 편두통을 달고 사는데. (중략) 예전에 한 번 아버지한테 그때 여자 만나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버지한테 나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다 그러는데 아빠가 무척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 또 맞았어요 또. 그날 이렇게 털어 놓고 나서. 맞는 동안에 아프다기보다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려고. 너는 왜 다른 애들은 다 멀쩡하게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아버지가 굉장히 또 극보수적이예요. 엄청나요.” (<양성애: 열두 개의 퀴어이야기> 중에서)

3. '가족'이란 무엇인가?

- 현재의 이성애제도적 가족은 가정폭력, 친족성폭력, 성별화된 노동강제, 역할강제, 특정 젠더 정체성 강제, 특정 성 정체성 강제, 사회적 소수자(성소수자 포함)에게 가해지는 직간접적 폭력 등이 일어나는 현장
- '어떤 가족'을 상상해야 하는가? 혹은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가?

4. '가족' 혹은 '급진적 개인주의'?

- (1) '복유립식 개인주의':
 - 복유립 국가들이 가진 보편복지의 힘.
 - 불평등한 권력관계 안에 있는 개인들이 저마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 편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을 국가의 존재 이유로 봄
 - 모든 개인은 자율성을 보장받고 가족을 통하지 않고 국가와 직접 관계함.
 - 국가는 시민 개인을 모든 형태의 종속과 의존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의무를 가짐. 즉, 빈민을 자선단체로부터, 노동자를 고용주로부터, 아내를 남편으로부터, 어린이를 부모로부터, 노인을 자식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의무를 갖는 것.
 - 복유립 국가들은 세계와 가족법 개정을 통해 개인이 가족에 가장 덜 의존하는 사회, 즉 가장 개인화된 사회를 만들어왔음. 복유립 사람들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존하지 않는 관계, 서로 평등한 권력관계에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가능하다고 믿음. 이상적인 가족도 누가 누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일하고 각자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고 봄.

4. '가족' 혹은 '급진적 개인주의'?

- (2) '급진적 개인주의':

- 급진적 개인주의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개인이고 개개인이 안녕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도 안녕할 수 있다고 보는 사유. 가족이 아니라 개개인의 복지에 초점을 두는 가치관.
- '철저한 개인주의', 즉, '북유럽식 개인주의'가 보편화시킬 때 '급진적 개인주의'라 규정할 수 있을 것.
- (출처: 박이은실, <칼럼> "급진적 개인주의가 필요하다", 한겨레, 2014년 7월 28일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48809.html>, 2017년 9월 17일 검색)

발표 3

‘건강’과 ‘가정’을 다시 생각하기

가족 차별은 어떤 고통을 만드는가

·
·
·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건강'과 '가정'을 다시 생각하기

가족차별은 어떤 고통을 만드는가

1. 가정/족은 무엇인가

인간다운 삶과 가정의 관계는 무엇인가? 인권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옹호한다고 할 때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인권과 어떻게 관계맺을 수 있는가?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개인의 선택, 사회의 구조 등 무엇하나로 설명할 수 없음. 왜 어떤 이들의 본능은 제도가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왜 어떤 이들의 선택은 병리적인 것으로, 왜 어떤 이들의 행복은 사회 구조 밖의 것으로 인식되는가? 이러한 질문없이 ‘실제’ 가정, 가족, 관계, 개인의 삶은 인간다워질 수 없음.

가정의 특정한 형태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관념은 지배적인 관념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와 다른 형태의 욕구를 병리화함.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인간다운 삶,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류가 해왔던 노력을 오히려 분리하고 가족이 놓여있는 사회적 맥락을 놓치게 할 위험이 있으며 역사적, 구조적으로 쌓여온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개별 가정의 노력으로 극복하라는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음.

2. 인권과 권리의 기반

1) 권리가 아닌 책임, 수혜 모델

- 정치권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소득별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그치는 경향. (가족에 대한 진보적 분석 없음)
- 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수준의 논의에서도 “권리”로서 접근하는 시각은 매우 부족함.
-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을 가로지르는 사회적, 문화적 차이들은 거의 고려되지 못하거나 빈곤의 결과로만 언급
- 시민들간의 차이, 위계, 삶의 형태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모델의 전환 필요.

2) 특정 생애주기에 기반

- 주거, 사회보험, 연금 등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특정한 생애주기/가족형태에 기반함.

예) 주택정책 모델: 20대 결혼으로 가구형성, 30대 출산으로 주택 확장, 40대 자산증가로 주택확장, 60대 이후 자산축소로 가구 축소 *주거정책 부재

예) 국민연금 1가구 1연금제 모델: 광범위한 적용제외로 인해 전업주부 등은 혜택 못받음. 이혼 시 노후 어려움. 단독세대 전세자금대출 가능연령 35세 ->30세(2013.6)

3) 가족책임과 특정 가족형태에 기반

-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적 현상의 국가적 대응은 가족가치 강조, 만혼 저지, 출산 장려 정책으로 모아짐
- 복지의 시장화는 가구단위의 구매력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수렴됨
- 가족책임이 강화될수록 빈곤층, 우선 복지대상이 아닌 비규범적 가족형태는

사회적 위험의 원인이자 결과로, 존재 비가시화/불인정

- 가족정책에서 등장한 다양한 가족은 취약가족의 수사(보수/진보 구분없음)

4) 혼인하지 않는 삶에 대한 차별

- 한국사회에서 혼인은 신분의 문제. (가족을 통한 신분증명제도. 사적논리가 공적화.)
- 혼인과 혈연에 기초한 가족제도는 성별화된 국민생산 기제, 가족적 지위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주어짐.
- 특정한 생애주기에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생산
- 한국사회의 타자, 소수자들은 ‘가족문제’를 겪음. (연좌제) 가족이 없는 것이 나은 사람들.

3. 가족화의 매커니즘

사회적인 문제를 가족화, 경제화하는 방식은 공공적 가치로, 공공성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화하고 상품화된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특정한 형태를 말함.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러한 흐름과 어떻게 부합하는가?

1) 비혼 여성 1인 가구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회는 결혼장려, 출산장려 정책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안전보호’문제로 접근하고 있음. 왜 비혼 여성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가? 결혼

과 가정은 왜 비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시민권의 문제를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가?

“관심받지 못한 30~40대 미혼여성의 미래는 결국 우리 사회가 20~30년 후에 맞닥뜨려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미혼여성군(群)이 급증하는 노인층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짓누르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주간조선 2017-9-15)

2) 동성커플

보험, 주거, 고용, 복지제도가 혼인/혈연에 기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 실제적인 불이익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구조적인 차별 재생산. 성소수자들의 존재와 요구는 특정한 젠더/섹슈얼리티 기반 시민권을 폭로, 예외적인 상태/시민으로 취급하려는 반작용 직면. 유언장 쓰기, 사전의료결정지시서를 비롯해 파트너십 인정과 동성결혼 법제화 등의 대안.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간 동거해온 여고 동창생 2명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6시 40분쯤 부산 북구 모 아파트 화단에서 A(62)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옆 동 20층에 올라가 유서와 점퍼, 운동화를 남겨놓은 채 복도 창문을 열고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복도 계단에 남긴 유서에는 “장기를 기증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여고 동창생인 B(62)씨와 1970년대 초반부터 40년을 함께 살았다. 1990년대부터 북구 소재 이 아파트로 이사 온 둘은 주로 B씨가 회사생활 등을 하며 돈벌이를 했고 A씨는 살림살이를 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B씨가 병원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된 B씨는 손을 써볼 틈도 없이 10월 초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B씨를 간병하던 A씨는 병원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B씨 가족과 마찰을 빚었다. A씨가 간병과정에서 B씨 명의로 된 아파트와 보험금 상속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해 갈등이 깊어졌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돈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모조리 챙긴 뒤 집을 나갔다. B씨 가족은 A씨가 B씨 명의 통장에서 주식배당금, 국민연금 등의 현금을 빼간 사실을 알고 A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아파트 집열쇠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살던 친구의 암 판정과 친구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 상황 등 급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자신의 처지를 비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신문 2013-10-31)

3) 장애인/빈민

- 시설수용-재가장애인 모두 기본적 권리에 접근 어려움. 국가와 가족의 책임이 선별적으로 작동한다는 것. 시설화는 기본적으로 가족구성권리를 박탈하는 제도.
- 부양의무제, 독거장애인 가중 지원 정책으로 인해 원치않는 ‘가족해체’ 결과를 낳기도 함.
- 성적자기결정권, 가족구성권 자체가 확보되기 어려운 탓에 결혼에 기반한 안정적인 성생활 유지를 목표이자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경향.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불임 수술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19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장애인 불법·강제 불임수술 실태와 대책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간 조사한 결과, 전국 60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중 8개 시설에서 남자 48명, 여자 27명 등 총 75명의 정신지체 장애인이 83년부터 98년까지 불임수술을 받았다”며 장애인 시설 명칭과 피수술자 명단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6개 시설의 남자 40명, 여자 26명 등 총 66명은 강제로 불임수술을 자행했음을 확인했다”며 “보건소와 대한가족계획협회(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고 관련자들의 증언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강제 불임수술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시술토록 한다’는 모자보건법 9조를 삭제하면서 삭제 이유로 ‘이 조항에 의해 시행된 강제불임수술은 한 건도 없음’을 제시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남도일보 1999-8-20)

4) 이주민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화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는 한정된 시간동안 쓰이는 노동력으로 간주되어 가족구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처지에 놓여있음.

“파이는 12년 전 한국에서 태어났다. 노동 비자를 받고 한국에 일하러 온 필리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였다. 아버지는 노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일하다 불법체류자로 잡혀 몇 해 전 필리핀으로 추방됐다. 파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어머니도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어머니는 불법이라는 신분이라도 있지만 파이는 공적으로 태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이다.

파이는 12살이 된 지금까지도 출생등록이 돼 있지 않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도 파이는 한국인이 아니다. ‘있지만 없는 아이.’ 이게 파이의 현실이다. 유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이주아동들에게 출생등록은 교육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다른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출생등록을 할 수 없으면 본인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2014-4-22)

4. 건강 이데올로기

건강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그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못한 자들은 낙인이 찍힌다. 흡연자는 단순히 자기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자로 간주된다. 어떤 기업은 흡연을 금지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흡연자’를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건강에 해로운 ‘활동’에서 건강에 해로운 ‘개인’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중략) 현대사회는 질병을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건강한 몸은 곧 생산적인 몸이다. 건강한 몸이 경기를 살린다. 행복도 마찬가지이다. (중략) 개인의 자유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가부장적 가치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이라는 의료화 해법을 가져오는 방식. (칼 세데르스트룡;앙드레 스파이서 지음, [건강신드롬], 조응주 옮김, 민들레)

건강하지 못한 가정,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가정은 결국 가정구성원들이 문제있는 것으로 수렴됨. 소비자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지상과제로 부르짖는 현 상황에서 왜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왜 가정은 여전히 단단하고 기능적이기를 요구하는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성이 없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을 병리화하면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건강가정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개입하고 있는가? 건강가정사가 보고 있는 현장과 정책과의 괴리나 모순, 성찰이 드러날 때 건강가정기본법이 변화해야 하는 방향은 더욱 선명질 것임.

5. 다양성, 차별, 폭력을 어떻게 문제화할 것인가

소수자들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족제도 자체와 불화하는 존재들임. 이들의

시민권,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가족제도, 가정에 대한 관념과 문화를 바꾸지 않고 가능하지 않음.

인간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친밀성, 돌봄, 양육, 상호부양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가정/가족이 가능하려면 이러한 노력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차별, 폭력, 불평등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특히 그것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가로막힐 때, 국가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보호하지 않아서 권리가 박탈될 때 국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서 여성의 출산과 돌봄을 강제하고 시장화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여성과 소수자들의 사회적인 고통은 더욱 심화될 뿐이며, 그것의 결과로서 소위 ‘가족문제’ ‘사회병리현상’은 부메랑으로 다시 귀환할 뿐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4

‘가족’의 이미지와 현실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세대의 행복찾기

·
·
·

류미레

영화감독

'가족'의 이미지와 현실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세대의 행복찾기

내가 내미는 손

나는 다큐멘터리감독이다. 동료감독들은 나를 엄마 전문 다큐멘터리감독이라 부른다. 세 번째 영화 <엄마...>와 네 번째 영화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엄마...>는 딸의 입장에서 우리 엄마를, <아이들>은 엄마의 입장에서 내 아이들을 담은 영화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엄마들을 만났고 그런 만남이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주었다. 이 영화는 그 이야기들 중 일부이다.

많은 이들이 거쳐왔고, 많은 책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나는 영화로 만들어보았다. 누군가는 지금 이 시대에 엄마로서의 시간,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처음, 왜 아무도 그 외로운 자리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았는가가 내 영화의 시작이었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다. 엄마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숭고하고 초월적인 모성신화에 짓눌리고, 소통이라고는 눈곱 만큼도 허용되지 않는 무기력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때론 살의까지 느끼며 견뎌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다. 선배엄마들도 그렇게 입을 다물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

만 유난을 떠느냐고 비난받을까 봐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영화를 통해 나의 말을 시작하자 같은 경험을 가진 이들이 ‘나도 그렇다’고 공감의 손을 내밀었다. 나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세상은 엄마들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가?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합법적인 탈출통로도 제시되지 않고 사회는 ‘엄마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해버릴 뿐 아니라 그 사랑의 내용은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숨이 막힌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엄마들은 살아간다.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세상과 협상하면서, 맞서면서, 또한 바로 그 세상의 규칙을 활용해 세상을 속이면서, 가끔은 그 세상의 거대함에 굴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다.

영화 <아이들>을 통해 얻고 싶었던 성취는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단일하게 보여지는 어떤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다양한 빛깔과 고유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저 엄마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나와, 나의 자매이자 동료인 엄마들이, 사회적 욕구와 자아가 있는 그 한 사람들이 엄마라는 역할을 거치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갈등하며 협력하며 : 나와 남편

출산과 육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결혼제도 안에 안착해있기에 나의 말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그렇지 않은 사람

은 미성숙하다)”는 말과 동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오해의 거미줄에 걸리는 것이 싫어서 입을 다물고 살았다. 하지만 한 번 꺼내기 시작하면 아기에 대한 기억의 실타래는 끝없이 풀려나온다. 처음 내 몸에 자리잡을 때의 이물스러움. 불러오는 배만큼 커져가던 기대와 공포. 가슴 속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났던 첫 만남. 오직 나만을 의지하는 작은 생명에 대한 애처로움. 소통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막막함…….

한편으로는 남편과의 관계도 변해갔다. 출산 전까지 우리는 평등부부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오직 여성만이 출산과 수유를 담당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 조건은 육아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라는 오해로 변모해갔다. 처음에 우리 부부는 똑같이 아기를 안지 못했다. 엄마는 우리들이 아기를 안으면 “목만 들고 다닌다”며 떨어뜨릴까봐 불안해했다. 그 불안도 잠시, 끊임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나는 점점 아기돌보기에 익숙해져갔다. 하지만 남편은 몇 달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이었다.

샐러리맨인 남편보다는 다큐멘터리 감독인 내가 더 자유로웠기 때문에 출산 후 아기 돌보기는 자연스럽게 내 차지가 되었다. 하루 24시간을 함께 지내는 나와, 퇴근 후 저녁시간만을 함께 하는 남편이 아기와 애착관계 형성에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런 조건이 일상까지도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함께 있을 때에도 남편은 전적으로 나를 의지했다. 그는 그저 조력자일 뿐이었다! 아기가 방긋방긋 잘 웃을 때만 예뻐할 뿐 아기가 울거나 보채면 얼른 아기를 내주었다.

“배고픈가 봐. 빨리 젖 줘.”

우는 것이 유일한 표현수단인 아기는 배고픔 말고도 다양한 이유로 칭얼거린

다. 기저귀가 젖었을 수도 있고 덩거나 추울 수도 있다. 나는 남편에게 ‘능동적으로, 생각 좀 하며’ 아기 돌보기를 요구했지만 아기에 관한 그는 마치 무뎠아 같았다. 그때를 돌아보면 남편 또한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남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분류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차이로 작용한다. 산후 조리 때문에 집에 오셨던 어머니는 남편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셨다. 가끔 육아와 가사 분담 문제로 남편과 내가 언쟁이라도 하고 나면 어머니는 질린 듯한 얼굴로 내게 말하곤 하셨다.

“아야, 나는 너같은 세상 하루만 살다 죽어도 한이 없겠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6남매를 키우는 동안 기저귀 한 번을 안 갈았다. 농사일로 바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농사일을 안했던 것 또한 아니었다. 애처로운 우리 어머니. 그러나 그런 어머니가 오히려 내게는 가장 큰 벽이 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나보고 ‘호강에 초친다’며 당신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셨지만 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당신을 희생하시며 나를 키워주신 덕분에 나는 차별보다는 평등을, 인내보다는 공정함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딸을 키우는 어머니였던 것이다. 가정의 평온함을 위해 두 눈 질끈 감고 세상이 부여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수도 있었지만 내 딸이 그렇게 살아야한다는 것을 참을 수는 없었다. 나는 내 딸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평등해야 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어머니처럼 살지 말라고 하지만 딸들은 어머니의 모습에서 미래를 본다. 내 딸의 당당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는 순종을 선택할 수 없었다. 하은이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었지만 육아와 관련한 역할 분담 문제로 우리 부부는 참 많이도 싸웠다.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도 결혼 전과 다름없이, 오히려 날개가 달린 듯 훨훨 날아다니며 맹렬하게 활동하는 남편의 모습은 내게 심한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한편으로는 갈팡질팡한 내 마음도 문제였다. 애초의 계획은 12개월 동안만 아기를 키우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2개월은 아기와 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선배언니를 찾아가기도 했다. 애가 셋인 선배언니는 나보고 오래오래 애를 키우라고 했다.

“애 키우면서 작업계획을 세워라. 골목풍경, 이런 것도 좋지 않니? 난 일찍부터 일 시작한 거 너무너무 후회 된다”

아기는 사랑스러웠지만 일하고 싶은 나는... 외로웠다.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문득 하은이를 보면 한없이 애처로웠다. 난 모성이 부족한가봐. 불쌍한 내 아기. 왜 나 같은 엄마를 만났니? 일하고 싶은 ‘나’와 하은이의 ‘엄마’라는 존재 사이에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굳게 마음을 먹고 18개월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시작했고 이후 엄마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어 출산, 육아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엄마로서 정체성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세대

첫애 하은이를 낳고서 식당에 간 적이 있다. 아기를 보느라 남편과 교대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요즘 애기엄마들은 참 대단해. 어떻게 저런 어린 애를 데리고 식당엘 오냐? 애가 다 클 때까지 참아야지~!"

농사일 때문에 아이를 묶어놓고 들일을 나갔다가, 자는 아이를 두고 시장을 보고 왔다는 어머니 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확실히 우리 세대의 육아는 윗세대보다는 편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애 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려다가도 슬그머니 입을 다문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윗세대 엄마들한테는 젊은 엄마들의 말이 공감보다는 반감을 생기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입을 다물다 보니 나중에는 말이 가슴 밑바닥에 고인 채 굳어가는 듯했다. 선배엄마들한테는 "그게 무슨 고생이라고?"라는 말을 들을까 봐, 결혼하지 않은 후배들한테는 "아기 얘기 좀 그만해"라는 말을 들을까 봐, 하고 싶은 말이 가슴 가득 고여 있는데도 말을 아꼈다.

그러다 영화 <엄마...>를 만들었고, 또 <아이들>을 만들었다. 내가 딸을 둔 엄마가 되어 우리 엄마를 바라보는 <엄마...>나, 세 아이와 함께 지내온 10년간의 육아일기인 <아이들>은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평범한 내가 그 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 영화를 만들자,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 자신들의 기억을 불러내었다. <아이들>을 보고 나서 어떤 관객이 썼던 "나도, 그도, 우리 모두 지나온, 기억할 수 없지만 존재했던 시기의 애뜻함"이라는 문구처럼, 나는 내 영화가 기억의 문을 여는 문고리가 되길 바랐다.

다큐멘터리 <아이들>은 2010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상영 이후 '찾아가는 공동체상영'을 포함하여 100여회가 넘는 상영회를 가졌다. 그리고 나는 그 상영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아이들>을 보고 난 후 오고가는 이야기들은 서점에서 본 어떤 육아기보다 생생하고 치열했다. 엄마로서 정체성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나의 동년배들은 엄마이자 자아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그 둘 사이의 간극과 갈등에 대해서 통렬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경험들을 토로했다. 그 분들은 생활의 격랑에 밀려서 흘러보냈던 그 모든 시간, 고스란히 마음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 시간들을 불러낸다. 나의 영화는 관객들의 그 반짝거리는 기억들을 불러내고, 그 기억의 문을 여는 작은 문고리가 되곤 했다. 그리고 나는 요즘 그 이야기들을 수집 중이다.

<아이들> 상영장에서의 이야기들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상영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반응은 “이런 내용도 영화가 되는구나”와 같은 놀라움이나 “애 키우기도 힘들었을텐데 영화 찍느라 수고했다”는 위로였다. “영화도 아니다”, “실패한 영화다”와 같은 거친 반응도 있는데 이러한 반응들의 공통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영화로 만들 만큼 대단한 일인가라는 의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대 신화로서의 모성은 비장하고 숭고해서 규범화된 행위를 요구하지만 일상으로서의 모성 실천은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생명활동의 반복으로 여겨져왔고 그만큼 자연화되어 있어서 공공장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모성주체들이 일상적인 모성에 대해서 털어놓는 이야기들은 어느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을 만큼 그 스펙트럼이 다양할 뿐 아니라 구태의연하기까지 하다. “나중에 후회하니 일 그만 두고 아이랑 같이 있으세요”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감독 정도 되니까 남편이 애도 보고 기저귀도 빼는 거 아니냐?”며 차이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아이 키우면서 늘 미안했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안심하기도 하고 “나이도, 가정 환경도 비슷한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놀라기도 한

다.

사실 제작자 ‘나’의 선택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 노동주체이자 돌봄주체로서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돌봄 과정을 영화로 담은 제작자 ‘나’의 선택은 갈등상황을 우회하는 가부장제와의 협상이었다. 어머니노릇에 있어서 훨씬 더 선진적인 선택을 한 이들은 무수히 많음에도 <아이들> 상영 현장에서 돌봄 주체들은 자신들의 모성 경험을 지배적 담론과 대결시키며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 사람과 비교해가며 차이를 찾아낸다. 이들은 그만큼 자기 경험으로부터 소외되어왔다. 상호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돌봄수행주체들의 다양한 모습이 바로 이 극심한 소외의 반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함은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영화 결말 부분의 내레이션과 관련한 “유전자를 전해줬다고 해서 내가 아이들 인생을 책임질 것은 아니다”라는 제작자 ‘나’의 발언에 대해 지역 상영회에서는 “애를 낳아놓고 무책임하다. 이런 영화 말고 사랑이 넘치는 영화 좀 만들어라”라는 비판을 들었고, 그 후 수도권 지역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같은 말을 꺼내자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라며 제작자 ‘나’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의아함을 보이거나 하면 “부모 역할은 미미하고 자식 교육은 랜덤이래요”와 같은 급진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비혼들만 참여했던 장에서는 관객들이 할 말을 찾지 못해 서로가 어색해하는 상황만 지속되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정상가족들만을 위한 영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남녀가 함께 했던 모 상영장에서는 “모성이 여성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1시간 내내 중년 남성들의 공격에 시달렸고 지역 여성단체가 마련했던 상영회 후에는 여성관객들은 영화에 고무받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영상제작반을 꾸리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정책, 돌봄 노동 이슈들이 정부의 정책과 법을 통해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부터이다(마경희 2010: 63). 공·사 이분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이 시기부터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다양한 이슈들이 정부의 정책과 법을 통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전개된 논의가 현실 곳곳의 각 국면에까지 통일된 견해로 진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 상영장 논의는 확인시켜준다. 젠더 규범에 근거한 공·사 이분법은 여전히 가정과 직장의 견고한 성차별 구조를 굳건히 하고 있고 남성들 또한 쉽게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흑실드(2001)는 ‘지연된 혁명’이라 부른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근대적 노동주체는 보살핌 노동에서 면제된 남성 노동자를 의미한다. 산업사회의 특징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남성에게 독점되었고 여성은 사적 영역 안에서 재생산을 전담하며 유보의 시간을 보내왔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변화가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했지만 사적 영역에서 재생산을 전담해야 하는 여성들의 처지는 여전하다. 변화한 여성과 변화하지 않은 사회간의 긴장을 가리키는 ‘지연된 혁명’이란 개념은 현 시기 한국 사회에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흑실드의 연구에 나타난 시기에 비해 한국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 여성운동에서 공·사 영역 이분법을 문제화한 것은 80년대 부터이고 제도화는 이미 90년대 초중반에 진행되었다. 한 쪽에서는 포스트페미니즘을 말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팽배해있는 다양한 비동시대성¹⁾이 압축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작자 ‘나’는 2013년 <아이들> 상영장에서의 입장들이 2008년 ‘엄마 논쟁’ 때 제기되었던 문제의식보다 더 후퇴해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모성담론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담론지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연된 혁명의 비동시대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대항 공공 영역을 만든다는 것은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보인다.

1) 많은 개인들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문화적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시대에 속한 시대. 1932년에 쓰여진 에른스트 블로흐의 논문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오직 외적으로만 그렇다. 오늘 거리에서 이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시대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이들이 서로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프랑코 모레티, 2001: 77)

<아이들> 상영장은 가부장제라는 지극히 거대하고 광범위한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라는 의미에서 유의미했다. 상영장에서 관객들은 <아이들>을 매개로 개인의 돌봄 경험을 말하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주의깊게 들어주는 긍정의 과정을 거치며 자기 존중감을 획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필자는 이것이 일회적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좀더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추천영화

12년간의 육아일기인 <아이들> 상영회에서 관객들은 왜 친정 식구들만 나오냐는 질문을 한다. 시댁에서 며느리는 그저 전 부치고 밥 차리고 설거지 하는 사람인데 그런 일 안하고 카메라 들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게 한국사회에서 며느리라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시댁 얘기는 단 한 장면도 등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5월 전주영화제에서 상영된 <B급 며느리> 덕분에 관객들은 결혼생활로 확장된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을 보고난 후 육아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던 것처럼.

<B급 며느리>의 주인공 진영은 시댁에 가지 않는 며느리이다. 며느리라면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한다고 믿는 시어머니와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진영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있다. 고부간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이들의 아들이자 남편인 선호빈 감독은 카메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들여다본다. 영화 안에서 선호빈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독립영화판 <사랑과 전쟁>’이라고 말한다. <B급 며느리>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었을 때 관객반

응은 폭발적이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영화를 보고 난 후 관객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영성한 구석이 많은 영화인데 관객들이 이야기의 빈 자리를 스스로의 기억으로 메워가며 감상해주었다.”

SNS에 올린 감독의 이 말에는 사적 다큐멘터리의 효용과 가치가 압축적으로 들어있다. 다수가 선택한 결혼이라는 삶 안에서 우리들 모두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나같은 사람에게 결혼생활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진 이상한 무대였다. 그 무대에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힘껏 노력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쉬쉬해 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B급 며느리>의 첫 문장은 통쾌하다. 내내 명랑하던 진영이 영화 막바지에 눈물을 쏟으며 말한다.

“이 결혼생활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했던 사람이었는지 그냥……. 오빠가 영화랍시고 이거 찍는 동안 나는 이 집에서 병들고 늙어가고 있다고.”

고부갈등이 미스터리인 이유는 갈등의 당사자 모두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합리적이고 사려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갈등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 안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는 각자 고군분투한다. 더 힘든 상황을 견뎌낸 앞 세대 사람들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 아직 이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왜 이혼하지 않지?” 의아해한다. 결국 혼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엄마...>나 <아이들>이나 <B급 며느리>같은 것을 보고 나면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것이 사적 다큐멘터리의 힘이다.

남는 말 :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은 출산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은 출산파업을 선언했다.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는 이 재생산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인 것이다. 부모들만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는 이 재생산시스템은 변화되어야 한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리스 라디쉬는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재생산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 노동시간의 단축(일과 양육에 균등한 시간 분배)을 얘기한다. 벨 혹은 생물학적 부모만이 아니라 동성애 커플이나 비혼자들이 양육과정에 동참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미래사회로 가는 길을 명확히 제시할 순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돌봄의 경험은 돌봄의 주체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돌봄노동을 거치면서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돌봄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하는 신비를 보여주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사랑, 일과 아이들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은 더 이상 영원한 존재가 아닐 수가 있다. 이 시대 가정을 꾸릴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 갖은 애를 쓰다 탈진한 사람들의 슬픔이 대답을 요구한다. 시대는 여전히 사적공간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만 무거운 짐을 잔뜩 지워놓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하지만 미래는 달라져야 한다. 사랑과 일과 아이들, 이 셋이 더 이상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